인삼문화 Journal of Ginseng Culture
Research Article 28-42, Vol. 1 (2019)

라이프니츠와 인삼

Leibniz and ginseng

설혜심*
Sul, Heasim*

초 록

위대한 철학자이자 미적분을 발견한 수학자로 잘 알려진 라이프니츠(Gottfried Wilhelm Leibniz, 1646~1716)가 인삼에 대해 물었다는 사실은 거의 알려져 있지 않다. 유럽의 계몽주의를 열었던 라이프니츠는 왜 인삼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을까? 이 글은 라이프니츠가 남긴 방대한 기록 속에서 인삼을 찾아내고, 개인적 생애와 당대의 지적 흐름을 엮어 그가 인삼에 관심을 갖게 된 경로를 추적한 작업이다. 16세기부터 유럽에서는 약물지와 같은 고대 그리스 텍스트의 재발견과 해외에서 들여온 새로운 식물들로 인해 본초학이 크게 발달하게 되었다. 같은 맥락에서 '구대륙' 중국에서 만병통치약으로 이름을 떨치던 인삼 또한 여행기 등을 통해 유럽에 소개되기 시작했다. 중상주의 기치 하에 유용한 약용식물에 대한 관심이 커 가던 유럽에서는 과학단체들을 중심으로 본격적으로 인삼에 대한 연구가 시작되었다. 라이프니츠는 그런 연구의 중심지였던 왕립학회와 프랑스 왕립과학원을 방문하고 학자들과 교류를 나누었으며 독일에 그와 같은 연구기관을 설립하는 것을 평생의 목표로 삼았다. 라이프니츠는 로마를 방문했을 때 예수회 선교사들과 긴밀하게 교류하는 기회를 갖게 되었다. 그 과정에서 중국에 대한 지적 호기심이 한층 더 깊어갔고, 그 맥락에서 인삼에 대한 관심도 커갔다. 라이프니츠는 그리말디, 부베 등 중국선교에서 핵심적인 활동을 했던 학자들과 인삼의 효능에 대한 정보를 주고받게 된다. 이 논문은 유럽의 계몽주의에서 전혀 주목받지 못했던 인삼이 17세기 말 유럽의 학문적 지형과 지식인들 사이의 교류, 중상주의적 해외팽창을 엮어내는 단초가 될 수 있음을 제시한 것이다.

주제어: 인삼, 라이프니츠, 본초학, 베를린 과학원, 예수회, 중국

Abstract

What is unknown about Leibniz (Gottfried Wilhelm Leibniz, 1646~1716), a great philosopher and mathematician, is that he inquired about ginseng. Why Leibniz, one of the leading figures of the Enlightenment, became interested in ginseng? This paper excavates Leibniz's references on ginseng in his vast amount of correspondences and traces the path of his personal life and cultural context where the question about ginseng arose. From the sixteenth century, Europe saw a notable growth of medical botany, due to the rediscovery of such Greek-texts as Materia Medica and the introduction of a variety of new plants from the New World. In the same context, ginseng, the renowned panacea of the Old World began to appear in a number of European travelogues. As an important part of mercantilistic projects, major scientific academies in Europe embarked on the researches of valuable foreign plants including ginseng. Leibniz visited such scientific academies as the Royal Society in London and Académie royale des sciences in Paris, and envisioned to establish such scientific society in Germany. When Leibniz visited Rome, he began to form a close relationship with Jesuit missionaries. That opportunity amplified his intellectual curiosity about China and China's famous medicine, ginseng. He inquired about the properties of ginseng to Grimaldi and Bouvet who were the main figures in Jesuit China mission. This article demonstrates ginseng, the unnoticed subject in the Enlightenment, could be an important clue that interweaves the academic landscape, the interactions among the intellectuals, and the mercantilistic expansion of Europe in the late 17th century.

Keywords: Ginseng, Leibniz, medical botany, the Berlin Society of Sciences, Jesuit, China

*연세대 사학과 교수. Professor, Department of History, Yonsei Univerisity
E-mail: snowlove@yonsei.ac.kr

I. 들어가며

"인삼뿌리가 그렇게 큰 칭송을 받을 만큼 효능이 좋은가?"[1] 이 질문은 1689년 고트프리트 라이프니츠 (Gottfried Wilhelm Leibniz, 1646~1716)가 예수회 신부 클라우디오 필리포 그리말디(Claudio Filippo Grimaldi, 1638~1712)에게 보낸 서한에 들어있는 내용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위대한 철학자이자 미적분을 발견한 수학자로 잘 알려진 라이프니츠가 인삼에 대해 물었다는 사실은 거의 알려져 있지 않다. 유럽의 계몽주의를 열었던 대표적 지성이었던 라이프니츠는 왜 인삼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을까? 이 글에서는 라이프니츠가 남긴 방대한 기록 가운데 인삼에 대한 언급을 찾아내고, 그가 인삼에 관심을 갖게 된 경로를 추적해 보려 한다.

라이프니츠는 1646년 독일의 라이프치히에서 법률가 집안의 아들로 태어났다. 학교에 입학하기 전 이미 독학으로 라틴어를 익히고 스콜라철학과 논리학에까지 상당한 지식을 쌓았던 신동이었다. 불과 열네 살에 라이프치히 대학에 입학하여 1663년 「개체의 원리에 대하여」라는 논문으로 학부를 졸업한 후 뉘렌베르크 인근 알트도르프 대학(University of Altdorf)으로 옮겨 1667년 「결합술에 관한 논고」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알트도르프 대학은 라이프치히에게 교수직을 제안했지만 그는 거절하고 대신 마인츠(Mainz)의 선제후인 쇤보른 가의 필립(Johann Philipp von Schönborn) 공의 궁정에서 일하기로 한다. 그곳에서 라이프니츠는 모든 기독교 국가의 공동법전을 만드는 작업과 다양한 기독교 종파를 통합하는 프로젝트를 맡았다.

이후 라이프니츠는 여러 궁정을 돌며 평생을 보냈다. 마인츠, 하노버, 베를린, 비엔나 등 주로 독일 지역이 거점이었지만 파리, 런던, 로마, 피렌체, 베니스, 모데나(modena) 등 외교적 사명을 띠고 머물렀던 곳도 많았다. 당시 독일에서 새롭게 등장하던 지식인 집단에게 궁정으로의 진출은 최선의 선택이었다. 야심만만한 학자들은 대 귀족들에게 정치와 경제를 복구할 효율적인 방책들을 제시하며 돈독한 후원을 얻고자 했다. 라이프니츠 역시 1660~1670년에 첫 번째 후원자인 필립 공에게 두 개의 거대한 제안서를 제출했다. 교육, 인쇄, 경제의 개혁, 도량형 통일과 아카이브의 구축 같은 당시로서는 전형적인 행정개혁안이었다.[2]

그림 1. 라이프니츠(1646–1716) 초상화

전후 피폐해진 국가의 재건과 아카이브 구축이라는 얼핏 보아 관련성이 없는 두 명제 속에 라이프니츠가 향후 인삼을 주목하게 된 첫 번째 배경이 숨어있다. 바로 본초학(本草學, Medical Botany)[3]의 발달과 분류법의 탄생이라는 흐름이다. 이 글은 라이프니츠 개인의 일생과 당대의 지적 흐름을 얽어 궁극적으로 인삼에 대한 그의 질문이 나오게 되는 과정을 재구성하는데, 이를 위해 첫 장은 바로 그 본초학의 발달과 유럽의 텍스트에 인삼이 등장하는 과정을 그려내기로 한다. 두 번째 장에서는 라이프니츠가 평생 열망했던 과학자 집단의 요람에서 인삼을 다루었던 사례들을 검토하고, 마지막 장에서 라이프니츠가 남긴 기록에서 구체적으로 인삼이 등장하게 되는 맥락을 중국에 대한 관심과 예수회 선교사들과의 교류를 통해 알아본다.

이 작업은 유럽의 계몽주의에서 전혀 주목받지 못했던 인삼이 17세기 말 유럽의 학문적 지형과 지식인들 사이의 교류, 중상주의적 해외팽창을 향한 노력의 한 가운데 놓인 중요한 구심점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드러낼 것이다.

[1] 라이프니츠가 예수회 소속 클라우디오 필리포그리말디에게 보낸 서신, Rome, 19, July, 1689. Gottfried W Leibniz, *Der Briefwechsel mit den Jesuiten in China* (1689-1714), eds., Rita Widmaier and Malte L Babin (Hamburg: Felix Meiner Verlag, 2006), p. 10.

[2] Ayval Ramati, "Harmony at a Distance: Leibniz's Scientific Academies," *Isis*, Vol. 87, No. 3 (1996), p. 436.

[3] 약용학(藥用學)으로도 불림.

그림 2. 디오스코리데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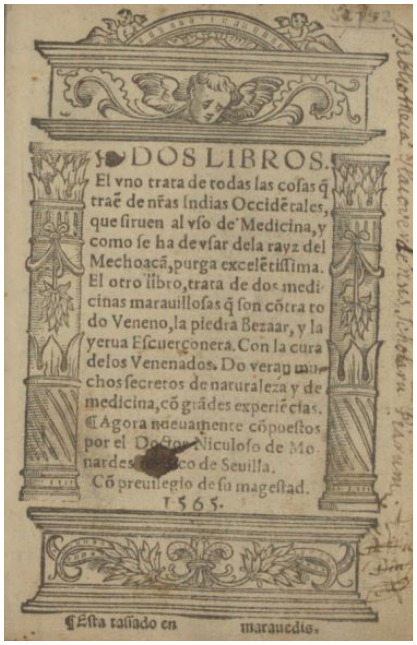

DOS LIBROS.
El vno trata de todas las cosas q̃ traẽ de nr̃as Indias Occidẽtales, que siruen al vso de Medicina, y como se ha de vsar dela rayz del Mechoacã, purga excelẽtissima. El otro libro, trata de dos medicinas marauillosas q̃ son cõtra todo Veneno, la piedra Bezaar, y la yerua Escuerçonera. Con la cura delos Venenados. Do verap muchos secretos de naturaleza y de medicina, cõ grãdes experiẽcias. ¶Agora nueuamente cõpuestos por el Doctor Niculoso de Monardes [illegible]co de Seuilla.
Cõ preuilegio de su magestad.
1565.
¶Esta tassado en marauedis.

그림 3. 니콜라모나르데스의 『서인도제도에서 가져온 것들을 다루는 두 권의 책』 속표지).

II. 본초학의 발달과 인삼의 소개

16세기 초반 유럽의 식물학은 큰 변화를 겪게 된다. 그 이전까지 유럽의 의학 및 약학적 전통은 아랍의 약학(Arabic pharmacy)에 큰 영향을 받고 있었다. 11세기 말부터 아랍권의 의서들이 살레르노, 톨레도, 몽펠리에 등 유럽 남부에 위치한 학문적 중심지로 들어왔고 곧 라틴어 번역을 통해 유럽 전역으로 널리 퍼졌던 결과였다. 하지만 번역된 텍스트만으로는 실제적인 의술이 실행되는 데 한계가 있었다. 특히 아랍의 의서에는 명시되어 있으나 서양에는 존재하지 않는 '동양의 약재들(Oriental drugs)'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지 못했던 상황에서 많은 오류가 발생하기도 했다.[4]

1453년 콘스탄티노플 함락은 서유럽에 그리스 텍스트를 광범위하게 퍼트리는 결과를 가져왔다. 이를 계기로 학자들은 아랍 텍스트와 고전 라틴어 문헌들을 그리스 의학서와 비교하기 시작했다. 또한 이 과정에서 기원후 1세기에 쓰인 디오스코리데스(Dioscorides) 『약물지(De Materia Medica)』가 번역되어 사용되기 시작했다. 이 움직임은 그 전까지 문헌학적 색채가 짙었던 약학서에 대한 관심을 식물학(botany), 나아가 본초학으로 전환하는 큰 변화를 불러일으켰다. 학자들은 디오스코리데스의 책에 언급된 식물들을 찾아 연구하기 시작했고 유럽 남부뿐 아니라 북부에서도 비슷한 식물을 찾으려는 노력이 시작되었다. 이런 과정이 점차 고전에 나타난 식물군뿐만 아니라 새로운 식물군과 약재, 약을 분석하고 묘사하는 단계로 발전해 가면서 수많은 새로운 식물학서와 약물지가 나타나기에 이른다.[5]

유럽 대륙 안에서 그리스-로마적 전통이 식물학 발달에 새로운 동력으로 작용했다면, 신대륙과의 조우는 식물학 자체의 범위를 엄청나게 확장시키게 만든 커다란 충격이었다. 황금을 찾아 신대륙에 다다른 스페인 사람들은 그곳이 금은보석 이외에도 값비싸고 유용한 약초의 보고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이미 1518년 신성로마제국 황제 막시밀리언 1세의 주치의였던 파올로 리치오(Paolo Riccio, 1480~1541)가 남아메리카의 유창목(Guaiacum officinale)이 매독을 치료하는 효과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 내용이 마인츠에서 출판되었을 정도였다. 콜럼버스의 첫 항해에서 발견한 담배(Tobacco)는 1548년에 포르투갈로 들어와 피부병 치료약으로 사용되었다.[6]

[4] Alain Touwaide, "Nature's Medicine Cabinet: Notes on Botanical Therapeutics at the Birth of the New World," *Journal of the Washington Academy of Science*, Vol. 89, No. 3/4 (2003), pp. 141-142.

[5] Touwaide, "Nature's Medicine Cabinet," pp. 143-144.

[6] Touwaide, "Nature's Medicine Cabinet," p. 146.

이런 발견들 이후 신대륙에서 채집된 식물들은 세비야 항에 내려져 한 곳으로 모아진 뒤 나름의 분석을 거쳐 유럽의 약학 시스템에 편입되었다. 그런 결과물의 하나가 의사이자 식물학자인 니콜라스 모나르데스(Nicolás Monardes, 1493~1588)가 펴낸 『서인도제도에서 가져온 것들을 다루는 두 권의 책(Dos libros, el uno trata de todas las cosas que traen de nuestras Indias Occidentales)』(1565)이다. 1570년대가 되자 신대륙의 자원을 좀 더 체계적으로 파악하려는 계획이 세워졌고, 필리페 2세는 자신의 주치의이자 자연학자인 프란시스코 헤르난데즈(Francisco Hernandez, 1514~1587)를 신대륙으로 보내 모든 자연자원에 대한 정보를 보내게 했다. 헤르난데즈는 1571년부터 3년에 걸친 작업을 통해 『뉴스페인 식물의 역사(Historia de las plantas de Nueva España)』를 집대성했다.[7]

그런데 인삼은 신대륙이 아닌 '구대륙'으로부터 소개된 이국식물이었다. 흥미롭게도 유럽 역사에서 인삼이 등장한 최초의 기록은 인쇄 텍스트가 아니라 비밀스럽고 사적인 보고서인 영국 동인도회사의 통신문에서다.[8] 그 속에서 1611년 남아프리카 희망봉에서 영국과 네덜란드 선박들이 당시에 '인삼'이라고 알려졌던 뿌리를 구하느라 경쟁을 펼쳤고, 1615년에는 그곳에서 동인도회사 직원들이 원주민들이 팔러 나온 닌진(ningine)[9]을 물물교환을 통해 구했다는 내용을 찾을 수 있다.[10] 1617년 일본 히라도에 주재하던 동인도회사 직원 콕스(Richard Cocks)가 본부에 서한에서는 한국의 인삼이 처음으로 등장하기도 한다. 즉, 희망봉에서 온 인삼을 전달받았는데, 너무 말라서 아무런 성분이 남아있지 않고, 일본에서는 아무런 가치를 인정받지 못한다면서 "한국에서 온 매우 좋다는 인삼뿌리와 함께 보내니 비교해 달라"는 주문을 넣은 것이다.[11]

17세기 중엽이 되면 인삼에 대한 정보가 출판물을 통해 유통되기 시작한다. 동아시아를 여행한 예수회 선교사들이 작성한 보고서들이 출판되었는데, 거기서 인삼을 언급한 구절들이 꽤 있다. 중국에 20년간 체류했던 포르투갈의 신부 알바루스 데 세메도(Alvarus de Semedo, 1585~1658)는 유럽인 가운데 인삼을 구체적으로 언급한 최초의 인물로, 인삼을 요동 근처에서 나는 것으로 파악했다. 그는 인삼이 중국인들 사이에 놀랄 만큼 원기를 회복시켜 주는 강장제로 통한다고 소개했다.[12] 이탈리아 신부 마르티니(Martinus Martini)의 『만주족의 중국 침략사(Bellum Tartaricum)』에도 인삼이 나타난다.[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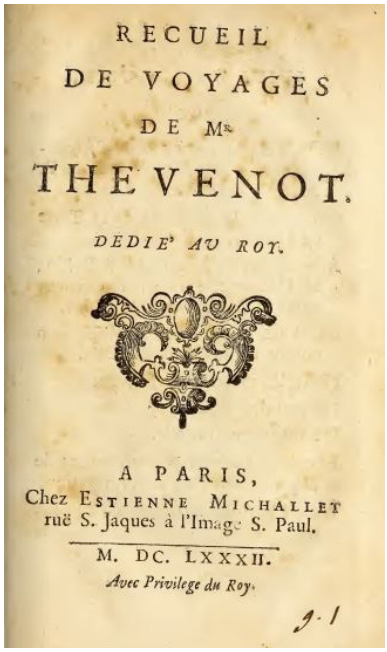

RECUEIL
DE VOYAGES
DE Mr
THEVENOT.
DEDIE' AU ROY.
A PARIS,
Chez ESTIENNE MICHALLET
ruë S. Jaques à l'Image S. Paul.
M. DC. LXXXII.
Avec Privilege du Roy.

그림 4. 『기묘한 여행기』의 속표지.

이처럼 인삼을 언급한 텍스트들이 널리 유통되었던 탓에, 박학다식했던 라이프니츠가 독서를 통해 인삼을 접했을 가능성은 충분하다. 라이프니츠는 예수회 관련 출판물 등을 통해 중국에 대해 충분히 알고 있었다고 알려지며 심지어 스물두 살에 "의학에서 일반적으로 중국인들이 어리석고 모순적인 사람들로 보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의학이 우리 것보다 낫다"는 말을 남기기도

7) Touwaide, "Nature's Medicine Cabinet," p. 147.

8) 설혜심, 「17~18세기 영미권의 인삼(Ginseng) 인식」, 『의사학(醫史學)』, 25권 2호 (2016).

9) Ninzin, ningine, ninsi 등은 17-18세기 인삼을 부르는 또 다른 말이었다.

10) 동인도 회사의 기록에 따르면 1611년 5월부터 Peter라는 사람에게 희망봉에서 이 뿌리를 찾아오라는 지시가 내려져 있다. 그는 희망봉에서 같은 임무를 띤 네덜란드 상선 두 척을 만났다. William Foyster, ed., *Letters Received by the East India Company*, 6 Vols. (London: Sampson Low, Marston & Co., 1896-1902), Vol. 5 (1617), p. 18 각주.

11) Foyster, *Letters Received by the East India Company*, Vol. 5 (1617), pp. 17-18.

12) Alvarus de Semedo, *History of the Great and Renowned Monarchy of China, to which is added a History of the late Invasion and Conquest of the Flourishing Kingdom of the Tartars, with an Exact Account of the Other Affairs of China,* trans. Thomas Henshaw (London, 1655).

13) 독일 예수회 선교사이자 수학자 Athanase Kircher는 *La Chine Illustrée* (1667)에서 Martini의 *Atlas Sinesis* (1655)를 인용하고 있는데 인삼에 대한 내용이 매우 자세하게 수록되어 있다.

했다.[14] 하지만 그가 인삼을 포함한 이국식물과 본초학에 대해 더 깊은 관심을 갖게 된 계기는 파리에서의 긴 체류였던 것으로 보인다.

1672년 라이프니츠는 독일을 떠나 프랑스의 수도 파리에서 4년 동안 머무르게 되었다. 표면적으로는 당시 파리에 유학중이던 귀족자제(Philipp Wilhelm, Johann Christian Boineburg의 아들)의 공부를 감독하기 위해서였지만 사실은 중요하고도 비밀스런 외교적 사명을 띠고 있었다. 이른바 '이집트 계획(Egyptian plan)'으로 알려진 그 업무는 프랑스가 네덜란드와 독일을 침공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으로, 루이 14세에게 네덜란드의 해외팽창을 저지하기 위한 가장 효율적인 수단은 이집트를 침공하는 일이라고 설득해 프랑스의 전력을 아프리카 쪽으로 돌리려는 것이었다. 이 계획은 곧 실패로 끝났지만 라이프니츠는 4년 동안 마인츠의 특사자격으로 파리에 머무르면서 새로운 학문과 문화에 흠뻑 빠져들게 된다.

이 시기 프랑스에서는 다양한 중상주의 프로젝트가 가동되고 있었다. 이를 지휘한 콜베르는 멜쉬제데크 테브노(Melchisédech Thévenot, 1620~1692)를 내세워 외국의 지리와 풍습, 동식물, 약초에 대한 방대한 정보를 수집하게 했고, 테브노를 둘러싼 지식인 집단인 '테브노의 학술동아리(la Compagnie de Thévenot)'는 동물학, 식물학, 지리학, 항해술 등 해외진출에 필요한 실용적, 경험적인 지식을 축적해 갔다.[15] 의학과 본초학은 그들의 주된 관심사 중 하나였다. 테브노 그룹이 내 놓은 해외정보의 집약체 가운데 하나인 『기묘한 여행기(Relation de divers voyages curieux)』[16]에서 인삼은 동양의 신비로운 식물로 등장한다.

이런 상황에서 17세기 유럽은 자연사(Natural History) 분야에서 엄청난 진전을 이루게 되었다. 프랜시스 베이컨만 하더라도 자연의 세계에 대하여 엄청난 데이터를 모았는데, 스스로가 그것을 '자연사'라고 불렀다. 파리에서 새로운 자연사의 발전을 직접 접하게 된 라이프니츠도 그 영향을 받게 된다. 1676년 하노버 궁정에 직책을 맡아 파리생활을 청산하고 독일로 돌아간 라이프니츠가 하르츠(Harz) 광산의 생산량을 증대시킬 수 있는 방책의 하나로 풍력을 이용한 배수시설을 설치하겠다는 제안서를 내놓았던 것이다. 이 프로젝트는 날씨와 현지책임자들과의 갈등으로 인해 실패로 돌아갔지만 라이프니츠의 자연사에 대한 관심과 지식을 잘 보여준 사례였다. 뿐만 아니라 그는 1691년부터 3년에 걸쳐 지구의 역사를 고찰한 『프로토게이아(Protogaea)』를 저술하기도 했다. 이 책은 베수비우스 화산 및 이탈리아의 벌판과 갱 등에서 나온 물질들을 분석한 것이다.

이처럼 자연사가 발달하게 된 배경에는 르네상스시기에 시작된 수집 열풍과 그렇게 모은 신기한 물건들을 전시한 '호기심의 방(Cabinet of curiosities)'이 유행한 것도 한몫을 했다. 하지만 신대륙으로부터 너무 많은 새로운 것들이 들어오면서 단순한 수집과 전시, 혹은 물건에 대한 묘사를 넘어선 좀 더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게 되었다. 또한 17세기 중반부터 최초로 공공박물관이 세워지고 과학연구소가 설립되면서 해외에서 들여온 신기한 것들을 관찰하고 실험하는 관행이 생겨나기도 했는데 이런 작업들은 수많은 물건에 대해 나름의 질서와 분류를 요구하는 일이었다.[17] 계몽주의의 특징 가운데 하나로 꼽히는 '분류'에 대한 집착이 시작된 것이다.

분류야말로 17세기 자연철학자들에게는 대 명제나 다름없었다. 식물학의 예만 보더라도 린네의 분류법이 나오기 전인 17세기 중반부터 많은 학자들이 식물을 분류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을 모색하고 있었다.[18] 특히 영국의 존 레이(John Ray, 1627~1705)는 1660년 케임브리지 인근에 자라던 식물의 카탈로그를 내놓은 데 이어 여러 기준을 통해 세계의 식물을 분류한 『식물의 역사(Historia Plantarum)』(1686, 1688)를 출간했다. 분류의 기준들 가운데 하나는 효용이었는데, 레이는 해외식물을 식용, 의료용, 공예용으로 나누고 인삼을 의료용 식물로 분류했다.

[14] Preussische Akademie der Wissenschaften, eds., "Gottfried Wilhelm Leibniz: Politische Schriften," in G. W. Leibniz, *Sämtliche Schriften und Briefe* (Darmstadt, 1931), Seris IV, I. p. 552.

[15] 이혜민, 「루이 14세의 인삼: 17세기 말-18세기 초 프랑스의 본초학 지식 형성」, 『의사학(醫史學)』, 25권 1호 (2016), pp. 117-119.

[16] Melchisédech Thévenot, *Relation de divers voyages curieux...*, 4 Vols. (Paris: [plusieurs éd.], 1663-1696).

[17] Anna Marie Roos, "Naturalia: The History of Natural History and Medicine in the Seventeenth Century," *Notes and Records of the Royal Society of London*, Vol. 66. No. 4 (2012), p. 317.

[18] 새로운 인삼이 속속 발견되는 바람에 식물학에서 인삼의 자리매김은 단번에 이루어지지 않았다. 라피토의 캐나다 인삼 발견 이후 영국과 프랑스 과학자들은 인삼에 세 가지–1. 한국과 중국산, 2. 일본산, 3. 캐나다산–종류가 있다고 분류하기도 했다. 1753년 린네에 의해서 인삼[캐나다산]에 대한 체계적인 최초의 묘사가 이루어졌는데, 그는 이것을 두릅나무과(Araliaceae)의 Panax(만병통치약) genus(속) quinquefolius(다섯 잎)으로 규정했다.

커피, 초컬릿, 차, 바나나 등이 식용식물이었다면 인삼은 페루비안 바크(Quinine), 성 이그나투스 콩(the St. Ignatius bean, Ignatia amara, 히스테리와 간대성 근경련 치료제)과 함께 대표적인 의료용 식물로 기록되었다. 레이는 인삼을 "Chinese root Ninsi or Ginseng"이라고 부르며 이것은 "만병통치약"이라고 기록했다. 공예용 식물이란 가구 등을 만드는 데 쓰일 수 있는 나무를 일컫는 것이었다.[19]

라이프니츠는 영국을 방문하기 전부터 레이에 대해 알고 있었고, 식물뿐만 아니라 영어단어를 수집해 분류한 레이의 업적에 대해서 높이 평가하곤 했다. 1676년 라이프니츠가 영국을 마지막으로 방문했던 길에는 레이의 저작을 사서 브레멘의 지인에게 보냈을 정도였다.[20] 레이는 1667년 영국 런던의 왕립학회(The Royal Society of London) 회원으로 선출되었고, 레이의 『식물의 역사』는 왕립학회의 지원으로 출간되어 널리 확산되었다. 라이프니츠는 바로 그 왕립학회의 회원이 되기를 간절히 바랬고, 독일에 영국의 왕립학회와 같은 과학원을 만드는 게 평생의 꿈이었다.

III. 유럽의 과학단체와 인삼연구

17세기에 '신철학,' '자연철학,' 혹은 '기계론 철학'이라는 움직임이 나타났다. 그리고 이 새로운 움직임은 오늘날 일반적으로 '과학혁명'이라고 부르는 변화를 동반하는 것이었다. 신철학의 주창자들 대부분도 보수적인 대학이 아닌 새로운 기구를 활동의 터전으로 삼게 되었다. 최초로 과학적 목적을 지니고 탄생한 아카데미는 로마의 린체이 아카데미(Academia dei Lincei, 1603)였다. 이후 피렌체의 아카데미아 델 치멘토(Academia del Cimento, 1657), 런던의 왕립학회(Royal Society, 1660), 파리의 왕립과학원(Académie royale des sciences, 1666)과 같은 단체들이 잇따라 생겨났다.[21] 이 단체들은 인문주의자들의 아카데미와 흡사하지만 자연연구에 더 주력했다는 차이가 있다.[22]

라이프니츠는 지식인들 사이의 교류와 공동 작업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했던 사람이었다. 평생에 걸쳐 수많은 학자들과 집착에 가까울 만큼 많은 서신을 주고받으며 학문적 토론을 하고, 그 편지의 사본을 제작해 보관했다.[23] 라이프니츠에게는 인간이 지닌 모든 지식을 집대성하고자 하는 원대한 꿈이 있었는데 그 꿈을 실현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 유럽, 심지어 중국 같은 먼 나라의 학자들까지 아우를 수 있는 연구단체를 설립하는 일이라고 믿었다. 당시 독일에는 그런 기구가 전무했기 때문에 라이프니츠는 먼저 독일제국 전체를 아우르는 과학원 설립을 우선과제로 삼았다.[24] 독일에 과학원을 세움으로써 새로운 발견과 발명을 북돋우고, 실제적인 교육을 통해 그 결과물을 확산시킴으로써 국가의 경제와 상업의 발달에 크게 기여할 수 있으리라고 확신했다. 하지만 그의 후원자들은 이런 라이프니츠의 제안에 무관심하거나 그의 호소를 무시하기 일쑤였다.[25]

라이프니츠가 모델로 삼았던 과학단체는 영국의 왕립학회와 프랑스의 왕립과학원이었다. 따라서 그가 두 기관에 정식 회원이 되기를 원했던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이었을지도 모른다. 1671년 라이프니츠는 『새로운 물리학의 가설(Hypothesis Physica Nova)』을 헨리 올덴버그(Henry Oldenburg, 1619~1677, 당시 왕립학회의 해외통신원)를 통해 왕립학회에 헌정했다. 뿐만 아니라 다른 과학논고들 여러 편도 왕립학회와 프랑스의 왕립과학원에 헌정했다. 프랑스에 머물던 라이프니츠는 1673년 1월 영국으로 건너가 한 달 남짓한 시간을 보내며 왕립학회를 방문했다. 아직 미완성이었던 계산기를 시연했는가 하면 로버트 보일(Robert Boyle), 로버트 후크(Robert Hook), 존 펠(John Pell)등과 만나기도 했다. 1673년 4월 영국의 왕립학회는

[19] John Ray, *Historia Plantarum*, Vol. 2 (London, 1688) [2nd edn.] , p. 1338.

[20] 라이프니츠는 레이의 *Collection of English Words*를 사서 브레멘의 Gerhard Meier에게 보냈다. R. S. Woolhouse, ed., *Gottfried Wilhelm Leibniz: Critical Assessments*, Vol. 3 (London: Routledge, 1994), p. 484, note 17.

[21] 이렇게 대학 바깥의 아카데미가 세워진 이유는 '새로운 과학'이 그 내용면에서 대학의 주된 조류와 부합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방법에 있어서도 당시 대학의 기능을 벗어난, 대규모의 실험이나 과학자들의 협동연구를 요구하고 있음을 반영한다. 김영식, 『과학, 인문학 그리고 대학』(생각의 나무, 2007), pp. 56-57.

[22] 피터 버크 지음, 박광식 옮김, 『지식: 그 탄생과 유통에 대한 모든 지식』(현실문화연구, 2006), p. 78.

[23] 라이프니츠는 무려 2만 통에 가까운 서신을 주고받았으며 교신지는 서유럽뿐만 아니라 러시아와 중국에 이르기까지 무려 16개국에 걸쳐 있었다. 라이프니츠의 서신은 보존상태가 훌륭할 뿐 아니라 그 내용면에서도 17세기 학술적 교신 가운데 가장 포괄적인 것으로 사료의 가치가 매우 높다.

[24] 라이프니츠가 꿈꾸던 과학원은 높은 수준의 독립성을 보장받는 곳으로 과학, 역사, 예술, 교역, 상업, 행정, 의학과 수많은 아카이브의 건설, 교육, 기계 개발, 저작권, 저널의 발행, 유용한 발명품을 모으고 보고할 수 있는 중심지였다.

[25] Ramati, "Harmony at a Distance: Leibniz's Scientific Academies," p. 43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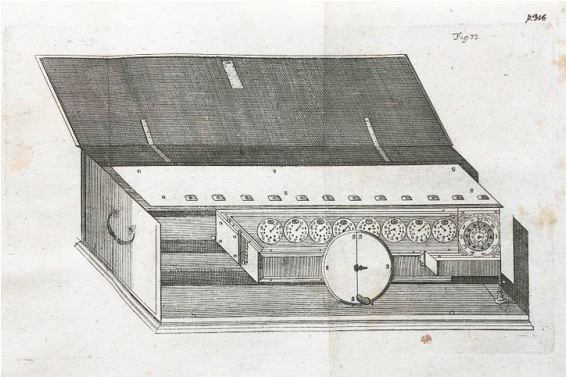


그림 5. 라이프니츠의 계산기.

최초의 기계적 컴퓨터라고 할 수 있었던 계단형 계산기를 발명한 공로로 라이프니츠를 영국 왕립학회 회원으로 선출했다.

라이프니츠가 선망하던 런던의 왕립학회는 창립 초기부터 인삼에 대해 큰 관심을 보였던 곳이다. 왕립학회 기관지 『철학회보(The Philosophical Transactions)』의 창간호(1665년)는 테브노의 여행기에서 인삼을 다룬 부분을 발췌해 실음으로써 인삼에 대해 가졌던 큰 관심을 증명했다.[26] 인삼을 식물학적으로 묘사한 내용뿐만 아니라 1파운드당 은 3파운드를 지불할 정도로 값비싼 것이며, 놀라운 원기 회복제이자 강장제로 중국인들이 숭배하는 약재라고 소개하기도 했다. 1670년대가 되면 영국의 과학자들은 인삼을 관찰하고 실험하기 시작한다.[27]

1679년 6월 26일 왕립학회에서는 핵심적 인사였던 크리스토퍼 렌(Sir Christopher Wren)과 앤드류 클렌치(Dr. Andrew Clench)가 중국종이에 싸인 인삼을 회원들에게 보여주며 인삼을 실험해 본 결과를 보고하기도 했다.[28] 또한 유럽 곳곳에 세워지기 시작한 약초원과 호기심의 방 등에서도 인삼을 중요 수집물 목록에 올리기 시작한다.[29] 1681년 발간된 『왕립학회 주요 수집품 카탈로그』에는 인삼뿌리(The root Ninzin, corruptly called Ginseng)가 들어 있는데 "어디서나 자라는 것이 아니라 한국에서만 자란다. 또한 통킹, 중국, 일본에서 널리 사용된다"는 설명이 붙어있기도 했다.[30] 라이프니츠가 영국의 왕립학회를 방문하고 활발하게 교류하던 때는 바로 왕립학회에서 인삼 대한 관심이 매우 컸던 바로 그 시점이었다. 라이프니츠가 영국을 방문했을 때 기록한 노트에는 '주목할 만한 분야'들의 목록이 적혀 있는데, 거기에 본초학과 해부학 의학이 들어있다는 사실은 라이프니츠가 이런 분위기에 영향을 받았음을 보여준다.[31]

영국보다 좀 늦긴 했지만 파리 역시 학문적인 지형은 비슷했다. 라이프니츠가 프랑스로 건너간 1670년대 초반은 왕립과학원의 국책 연구 가운데 의학과 본초학이 매우 중요하게 취급되고 있었다. 왕실 주치의 도다르(Denis Dodart, 1634~1714)가 1673년 왕립과학원 회원으로 가입하면서 1690년대까지 식물학 분야의 책임자로 활동하게 되었는데, 도다르의 식물학 프로젝트에 참여한 국왕의 어의 부르들랭(Claude Bourdelain, 1621~1699)은 프랑스에서 학술적 인삼 연구의 포문을 연 장본인이다. 1697년 11월 부르들랭은 왕립과학원에서 중국에서 높이 평가받고 있는 "신-셈(Sin...sem)"에 대한 소고를 발표했다. 인간의 형상을 한 중국의 뿌리식물인 인삼은 주로 동부 타타르 지방인 요동에서 자라고 병으로 크게 쇠약해진 환자나 노인들에게 힘을 북돋아 준다고 언급했다.[32]

라이프니츠는 1675년 프랑스 왕립과학원의 종신회원 자격에 지원했으나 프랑스 측은 이미 너무 많은 해외학자들이 북적거리던 상태라고 판단하여 그에게 연금을 주기를 거부했다.[33] 1700년이 되어서야 라이프니츠는 프랑스 왕립과학원의 회원으로 위촉되었다. 라이프니츠의 프랑스 체류와 영국 방문은 일반적으로 그가 수학에 몰두하게 된 결정적인 계기로만 강조되는 경향이 있는데, 수학뿐만 아니라 자연사와 본초학 같은 다양한 분야에도 깊은 관심을 갖게 되는

[26] Thévenot, "Relations of Divers Curious Voyages," *Philosophical Transactions*, Vol. 1 (1665-1666), p. 249.

[27] John H. Appleby, "Ginseng and the Royal Society," *Notes and Records of the Royal Society of London*, Vol. 37, No. 2 (1983), pp. 122-126.

[28] Thomas Birch, *History of the Royal Society* (London, 1737), Vol. 3, p. 490.

[29] Anon., *A Companion to Every Place of Curiosity and Enjoyment in and about London and Westminster* (London, 1767), p. 93; William Curtis, *A Catalogue of the British, Medicinal, Culinary, and Agricultural Plants, Cultivated in the London Botanic Garden* (London, 1783), p. 44; Lady Charlotte Murray, *The British Garden. A Descriptive Catalogue of Hardy Plants, Indigenous, or Cultivated in the Climate of Great-Britain,* 2 Vols. (Bath, 1799), Vol. 1, p. 241.

[30] Nehemiah Grew, *Musaeum Regalis Societatis* (London, 1681), p. 227.

[31] Chymica, Mechanica, Magnetica, Botanica, Anatomica, Medica, Geometrica, Miscellanea 로 나뉘어 있다. Karl Immanuel Gerhardt, "Leibniz in London," *The Monist*, Vol. 27. No. 4 (1917), p. 525.

[32] Jean-Baptist Du Hamel, *Regiae Scientiarum Academiae Historia* (Paris: Étienne Michallet, 1698). [Rev. ed. Paris: J.-B. Delespine, 1701], p. 451. 이혜민,「루이 14세의 인삼」, p. 124에서 재인용.

[33] Ramati, "Harmony at a Distance: Leibniz's Scientific Academies," p. 438.

중요한 경험이었다. 뿐만 아니라 영국과 프랑스의 과학단체의 활동을 직접 목격한 라이프니츠는 학자들 사이의 교류와 공동작업에 대한 열망을 더욱 불태우게 되었다.

파리생활을 접고 하노버 궁정에서 일하기 시작하면서 라이프니츠는 곧 범 독일을 아우르는 국가주도의 제국 과학원(Imperial Scientific Academy)을 설립하기 위한 기초작업에 돌입했다. 팸플릿을 발행하여 독일 과학원의 필요성을 역설하는 한편 49명의 핵심적인 인물들을 선별하여 그들을 중심으로 곳곳에 흩어져 있는 지식인들을 연결하고자 했다. 과학원이 정치적· 재정적으로 독립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확신 속에 라이프니츠는 귀족의 후원에 의존하지 않고 독립적인 재원을 마련하는 다양한 방도도 구상했다. 하르츠 광산의 배수시설 설치 프로젝트는 기술개선으로 인해 발생할 이익의 일정부분을 과학원 재원으로 확보하기로 기획했던 것이었다.[34]

하지만 하르츠 광산 프로젝트가 실패로 끝나자 라이프니츠는 좌절과 절망 속에 놓이게 된다. 결국 라이프니츠는 그동안 미뤄왔던 브라운슈바이크-뤼네부르크 가문의 역사(history of the House of Brunswick-Luneburg)를 쓰는 일을 맡겠다고 나섰다. 궁정 역사가로 임명된 그는 자료를 찾기 위한 경비를 얻어 1687년부터 1690년까지 비엔나와 이탈리아 등으로 그랜드 투어를 떠나게 되었다. 이 여행은 라이프니츠에게 다양한 인물들과 교류를 나누게 한 또 다른 기회를 제공했다. 특히 로마에서 예수회 신부들과의 만남은 라이프니츠로 하여금 중국에 대한 관심을 더욱 부추겼고, 여기서 인삼에 대한 구체적 기록이 나오게 되었다.

IV. 중국, 예수회, 인삼

앞서 살펴보았듯이 중국을 다녀온 예수회의 보고서와 출판물은 유럽에서 인삼이 알려지는 데 절대적인 역할을 했다. 예수회는 해외 곳곳에 교육기관을 설치함으로써 학제적이고도 다민족적인 성향을 지닌 학문발달에 크게 기여했다. 또한 유럽사회에 해외의 지식과 기술을 들여오고 동서양의 문화적 교류를 촉진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했다. 예수회 선교사들은 특히 천문학, 지도제작학, 지리학, 자연사, 인종지학, 식물학, 본초학 분야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평가되며 이런 맥락에서 그들의 활동은 "자연신학, 식민주의적 자연사와 계몽주의의 형이상학의 교차점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로 꼽히기도 한다.[35]

흥미로운 것은 천문학 같은 분야와 본초학에서 예수회의 활동에 큰 차이가 나타난다는 사실이다. 천문학이 비록 기초적인 장비에 기댔을지라도 뛰어난 전문가인 엘리트 선교사가 개인적으로 활약했던 분야였다면 본초학은 특별한 전문지식이 없었던 평범한 수사들까지도 많이 참여했던 일이었기 때문이다.[36] 이들은 선교를 위해 파견되었던 지역의 '자연적 치료법'에 대해 매우 개방적이었으며 그러한 열린 태도로 인해 비유럽 지역에 전통적으로 내려오던 많은 지식을 습득할 수 있었다. 그 대표적 사례 가운데 하나가 캐나다에서 인삼을 발견한 에피소드다.

1709년 경 프랑스 예수회의 신부 피에르 자르투(Pierre Jartoux, 1668~1720)는 강희제의 명으로 지도를 제작하기 위해 만주지역을 탐사하던 중 한국과의 국경 지방에서 실제로 인삼을 보게 되었다. 수백 명의 병사들이 '그 유명한 만병통치약'을 캐는 장면을 묘사한 인상적인 보고서[37]는 여러 언어로 번역되어 퍼져나갔고, 캐나다에 머물던 예수회 신부 조셉 프랑소아 라피토(Joseph François Lafitau, 1681~1746)가 이를 읽게 되었다. 1716년 라피토는 몬트리올 인근에서 비슷한 식물을 발견하여 교단에 보고하게 된다.[38] 이 발견으로 인해 북미대륙의 인삼(화기삼)은 프랑스와 영국 상인들에 의해 중국으로 수출되기 시작했으며 독립 전후 미국에서 모피와 더불어 가장 중요한 재원으로 떠오르게 된다.

그런데 실제로 이 인삼을 발견한 사람은 라피토가 아니라 그 지역의 모호크(Mohawk)족 인디언 여성이었다. 라피토는 자신이 머물던 캐나다의 위치가 중국에서 인삼이 자생지하는 곳과 비슷한 위도에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본초학에 능통한 치료주술사인 그 여성에게 인삼과 흡사한 식

[34] Ramati, "Harmony at a Distance: Leibniz's Scientific Academies," p. 438.

[35] Steven J. Harris, "Jesuit Scientific Activity in the Overseas Missions, 1540-1773," *Isis*, Vol. 96. No. 1 (2005), p. 76.

[36] Harris, "Jesuit Scientific Activity in the Overseas Missions," p. 73.

[37] Pierre Jartoux, "The Description of a Tartarian Plant, Call'd Gin-seng, with an Account of Its Virtues. In a Letter from Father Jartoux to the Procurator General of the Missions of India and China," *Philosophical Transactions* Vol. 28 (1713), pp. 237-247.

[38] J. F. Lafitau, *Mémoire...concernant la précieuse plante du gin-seng de Tartare, découverte en Canada* (Paris, 1718).

물이 있는지 찾아달라고 부탁했던 것이다.[39] 현지의 전통적인 지식을 존중하는 개방적인 태도로 인해 인삼을 쉽게 발견했던 셈인데, 그로 인해 이후 백여 년 동안 북미대륙에서 채삼작업은 주로 인디언을 통해 이루어지게 된다.

중국에서 각광받는 인삼을 다른 곳에서 찾아보려 했던 사례는 예수회가 서양의 지식과 기술을 일방적으로 동양에 전파하기보다는 오히려 중국을 자신들이 배우고 따라잡아야 할 준거틀로 설정하기도 했음을 보여준다. 이 시기 영국과 프랑스를 중심으로 학자들 사이에 촉발되었던 고대와 근대 논쟁(Battle between Ancients and Moderns)에서도 중국은 유럽이 본받아야 할 모델로 등장했다. 고대파 학자들은 중국이 유럽보다 훨씬 오랜 역사를 갖고 있었고 매우 효율적인 통치체제를 갖고 있었다면서 중국이야말로 유럽이 닮아야 할 모범이라고 주장했던 것이다. 고대 중국의 기록들이 성경의 기술보다 훨씬 탄탄한, 실증적이고도 경험적인 역사기록으로 비춰지면서 그것을 기초로 서양 고대의 역사를 다시 쓰자는 제안이 나타나기도 했다.[40]

이런 분위기 속에서 라이프니츠가 봉직했던 독일 궁정에서도 중국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었다. 특히 17세기 후반 스페인과 포르투갈의 세력이 약해지는 상황에서 신성로마제국의 황제 레오폴드 1세는 예수회의 선교가 국익에 도움이 될 중요한 사업이라고 판단하게 되었다. 1664년 황제는 예수회 수장이었던 지오바니 파울로 올리바(Giovanni Paolo Oliva, 1600~1681)에게 편지를 보내 재정적 지원 및 내륙으로 여행하는 선교사의 보호를 약속했다. 이 조치 후 예수회의 주요 저작들은 레오폴드 황제에게 헌정되기도 했고 중국으로부터 특이한 물건, 책과 도자기가 많이 들어오게 되었다. 그런데 얼마 후인 1683년 터키의 비엔나 침공을 비롯해 전쟁으로 인해 독일이 혼란에 빠지자 독일을 제치고 프랑스의 루이 14세가 예수회의 가장 강력한 후원자로 자리매김하게 되었다. 프랑스의 영향 아래 예수회는 서양을 중국에 소개하는데 주력하던 기존의 방식에서 벗어나 거꾸로 중국의 문물을 유럽에 소개하는 일에 치중하게 된다. 1685년 프랑스 왕립과학원은 중국의 지리, 생산량, 자원, 관습과 제도 등에 관해 긴 질문 시리즈를 작성했다. 질문 시리즈 작성은 당시 지식인과 선교사들 사이에 흔히 볼 수 있던 교류방식이었다.[41]

라이프니츠는 1689년 로마에 도착했다. 하노버 왕조의 역사를 집필하기 위한 자료수집이 주된 목적이었다. 하지만 이탈리아에 머무는 동안 나폴리, 피렌체와 볼로냐, 베니스, 모데나 등을 여행하기도 하고 과학협회들과 교류하고 저작을 출판하는 한편 예수회 신부들과도 깊은 친분을 쌓았다. 특히 서문에서 언급했던 예수회 신부 그리말디와는 1689년 여름 매일같이 만나 대화를 주고받았다. 그리말디는 이탈리아 피에몬테(Piedmont) 출신으로 1658년 예수회에 입문한 뒤 1666년 중국으로 보내져 강희제의 궁정에서 천문학과 과학을 가르치다가 1686년 유럽으로 귀국했다. 라이프니츠와 로마에서 만난 후 곧 다시 중국으로 떠나 중국 예수회의 수장, 베이징의 예수회 대학 교장을 역임하다가 1712년 베이징에서 사망했다.

라이프니츠는 그리말디와의 만남을 통해 중국에 대해 훨씬 깊이 알게 되었고 예수회 선교를 둘러싼 정치적이고 종교적인 복잡한 문제들에 대해서도 인지하게 되었다. 예수회 측에서도 라이프니츠를 환영했는데, 크게 두 가지 이유에서였다. 우선 당시 널리 알려진 뛰어난 지성이 열린 마음으로 중국에 관심을 두는 사실을 높이 평가했기 때문이고, 둘째로는 당시 가톨릭계에서 가장 뜨거운 논쟁거리였던 '중국의 제사논쟁'[42]에서 라이프니츠가 중국 선교에서 제사를 허용하자는 예수회 측 의견을 지지했기 때문이다.

라이프니츠는 어린 시절부터 중국에 대해 관심이 있었지만, 로마에서 예수회 선교사들과 교류하면서 그 관심이 엄청나게 증폭되었다. 사실 라이프니츠가 중국에 대해 배우고자 하는 의지는 그가 모시던 독일 군주들의 이해관계와도 일치했다. 경제적 자립에 관심이 많던 유럽의 지배자들은 중국의 농업과 수공업의 비밀을 배우고자 했으며, 중국과 비슷한 상품을 만들어 좀 더 효율적으로 경쟁하고자 하는 욕망을 가지고 있었다. 따라서 유럽인들이 진

[39] William N. Fenton, "Contacts between Iroquois Herbalism and Colonial Medicine," in *Annual Report of the Smithsonian Institute* (Washington, DC.: Smithsonian Institute, 1941), pp. 503-526. esp. 518-520.

[40] 민은경, 「고대와 근대 논쟁: 템플과 워튼의 중국관을 중심으로」, 『영국연구』, 9 (2003), pp. 35-36.

[41] Donald F. Lach, *The Preface to Leibniz' Novissima Sinica* (Honolulu, Univ. of Hawaii Press, 1957), pp. 21-22.

[42] 중국 선교과정에서 예수회 신부들이 중국의 전통적인 유교 의식과 조상숭배 예식을 가톨릭의 견지에서 허용하자는 주장과 그것을 미신이라고 반대하는 도미니코회와 프란시스코회 사에 벌어진 논쟁. 이 문제는 1697년부터 7년 동안 교황청에서 논의되기에 이르렀고 결국 천(天)이나 상제(上帝)라는 말을 하느님을 표시하는 말로 쓰지 못하도록 금지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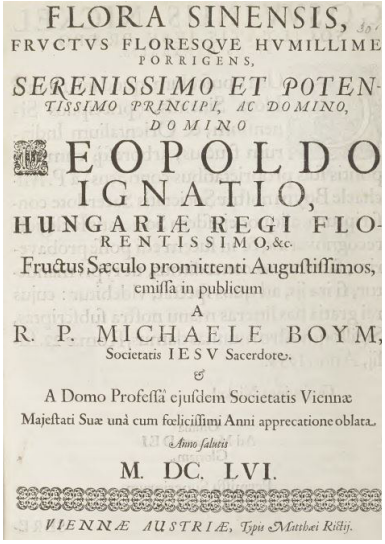

FLORA SINENSIS,
FRVCTVS FLORESQVE HVMILLIME
PORRIGENS,
SERENISSIMO ET POTENTISSIMO PRINCIPI, AC DOMINO,
DOMINO
LEOPOLDO
IGNATIO,
HUNGARIÆ REGI FLORENTISSIMO, &c.
Fructus Sæculo promittenti Augustissimos,
emissa in publicum
A
R. P. MICHAELE BOYM,
Societatis IESV Sacerdote.
&
A Domo Professâ ejusdem Societatis Viennæ
Majestati Suæ unà cum fœlicissimi Anni apprecatione oblata.
Anno salutis
M. DC. LVI.
VIENNÆ AUSTRIÆ, Typis Matthæi Rictij.

그림 6. 마이클 보임의 저서 『중국의 식물군』 속표지.

정으로 원했던 중국에 관한 정보는 대부분 기술로 이어질 수 있는 '실제적'이고도 '과학적'인 것들이었다.

라이프니츠는 막 중국으로 다시 출발하려는 그리말디에게 편지를 보내어 그동안 많은 정보를 준 데 감사를 표하며 "그동안 [우리 유럽은] 동인도제도(the Indies)[43]와 다양한 방식으로 교류를 했지만 과학적인 것은 별로 없었다"면서 관찰력이 뛰어난 사람이 중국에 대해 더 풍부한 정보를 주기 바란다"라고 썼다.[44] 구체적으로 그는 30개의 질문을 작성해 보냈는데, 금속제조, 차, 종이, 비단과 '진짜' 도자기, 염료, 일본도(日本刀)의 날, 유리 등에 대해 질문했다. 라이프니츠는 그리말디와 같은 중국의 현지사정에 능통한 사람이 제공하는 정보를 수합해 유럽의 수공업자, 과학자, 학자들에게 필요한 데이터를 제공하려했다. 그 질문들 가운데 인삼에 대한 질문이 있다. 먼저 원문을 보자.

> 질문 2: 인삼의 뿌리가 일반적으로 찬양받을 만큼 그렇게 효능이 좋은가?
> (라틴어 원문: An Radix Ginseng magnarum virtutum, ut vulgò praedicatur)[45]

이에 대한 그리말디의 답변을 라이프니츠는 이렇게 기록했다.

> 인삼 뿌리 1 파운드는 중국에서 대략 40 스쿠도에 팔린다. 인삼 뿌리는 특히 나이든 사람들에게 매우 효과가 있다. 그것은 물에 넣어 익히고 차처럼 달인 액체로 마시는데, 다른 점이라면 차는 끓는 물로 우리지만 인삼 뿌리는 물에 넣은 채로 달인다. 인삼은 특별한 맛이 없으며 다른 특별한 특징을 보이지 않는다. 그리말디가 인삼 뿌리 약간을 피렌체로 가져와 대공에게 바쳤다.
> (라틴어 원문: Radicis Ginseng in China ipsa libra 40 circiter scutatis venditur. Magnas vires habet pro senibus inprimis. Coquitur cum aqua et decoctum bibitur ut Thee, eo discrimine quod ipsi Thee infunditur aqua fervens. Hic coquitur cum aqua. Insipidum est, nec qualitates notabiles ostendit. Grimaldus Florentiam nonnihil ejus attulit ad Magnum Ducem.)[46]

인삼에 대한 질문에 이어 라이프니츠는 약용식물의 유럽으로의 이식가능성에 대해 질문했다.

> 질문 3: 몇몇 특별한 식물들을 유럽이나 적어도 기독교 세계로 옮겨 심을 수 있지 않는가? 그리고 그것들은 어떤 이점을 지니고 있기에 다른 식물들보다 유익한가?
> (라틴어 원문: An non quaedam plantae egregiae in Europaeas vel saltem Christianas regiones transplantari posse videantur, et quae id prae aliis ob utilitatem mereantur)[47]

이 질문에 대한 그리말디의 답변을 라이프니츠는 이렇게 기록했다.

> [유럽이나 기독교 세계에 옮겨 심을 수 있는 식물로는] 어떤 야생 백합 종이 있다. 한 종류의 야생 백합이 있다. 백합 알뿌리에서 추출한 기름을 관절염으로 인해 뜨겁고 아

43) 동인도제도를 일컫는 말. 동인도 제도는 16세기 이후 현재의 인도 아대륙, 동남아시아, 오세아니아 제도, 그리고 동남아 해양 지역을 일컫기 위해 유럽인들에 의해 사용된 용어이다.
44) Lach, *The Preface to Leibniz' Novissima Sinica*, p. 29.
45) 라이프니츠가 예수회 소속 클라우디오 필리포 그리말디에게 보낸 서신, Rome, 19, July, 1689. Leibniz, *Der Briefwechsel mit den Jesuiten in China*, p. 10.
46) 라이프니츠가 남긴 예수회 소속 클라우디오 필리포 그리말디와의 대화록, Rome, Summer, 1689. Leibniz, *Der Briefwechsel mit den Jesuiten in China*, p. 16.
47) 라이프니츠가 예수회 소속 클라우디오 필리포 그리말디에게 보낸 서신, Rome, 19, July, 1689. Leibniz, *Der Briefwechsel mit den Jesuiten in China*, p. 10.

픈 부위에 떨어뜨리면, 놀랍게도 고통이 단숨에 사라진다. 이 백합 역시 견본을 그리말디가 피렌체로 가져왔다. (라틴어 원문: Est genus quoddam lilii sylvestris, oleum ex bulbo instillatum parti ab arthritide calida[e do]lenti subito dolorem quasi miraculo tollit. Id quoque secum Florentiam attulit Grimaldus.)[48]

인삼에 대한 질문은 라이프니츠가 작성한 30개의 질문 가운데 두 번째 문항이다. 첫 번째 질문은 중국의 불, 즉 화력에 대한 질문이었다. 이처럼 인삼에 대한 질문이 두 번째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은 인삼 대한 라이프니츠의 호기심이 얼마나 컸는지를 잘 보여준다. 라이프니츠는 폴란드 출신 예수회 선교사로 중국을 다녀온 마이클 보임(Michael Boym, c. 1612~1659)이 쓴 『중국의 식물군(Flora Sinensis)』(1656)[49]을 알고 있었는데,[50] 유럽에서 중국의 본초학을 묘사한 첫 번째 책으로 알려진 이 책에서도 인삼을 중국에서 각광받는 약재로 다루고 있다. 라이프니츠의 질문은 보임의 책으로 충족되지 않은, 좀 더 정확한 정보를 현지로부터 얻고자 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아래의 질문은 중국의 유용한 약용식물을 도입하고 싶은 그의 열망을 좀 더 구체적으로 드러낸 사례인데, 이 질문에 대한 그리말디의 답변은 기록되어 있지 않다.

질문 14: 우리 유럽인들이 뜸쑥을 모방했던 것처럼, 유럽인들이 모방하거나 수용할 수 있는 효과가 확인된 약들을 알고 있는가? 그리고 중국 외과 의사들의 수술에 대해서 아는 바가 있는가?
(라틴어 원문: An nota sint quaedam Medicamenta probatae virtutis, quae et in Europa imitari aut ad nos transferre liceat, ut Moxam imitati sunt nostri. Et de operationibus Chinensium Chirurgicis.)[51]

로마에서 라이프니츠와 만났던 그리말디는 곧 다시 중국을 향해 떠났지만 두 사람의 서신교환은 계속되었다. 중국에 대한 라이프니츠의 관심은 실용적인 차원을 넘어 지식과 문화의 교류에까지 확장되어가고 있었다.[52] 라이프니츠는 계속 더 많은 질문을 던졌고, 1693년 고아(Goa)에서 그리말디는 '질문이 너무 많고 중대하므로 중국 각지에 흩어져 있는 동료들에게 물어서 그런 집단적 노력을 통해 유럽의 학문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대답을 하겠다'라고 답했다.[53]

그리말디의 이 약속은 아마도 라이프니츠가 만족할 만큼은 지켜지지는 않은 것 같다. 라이프니츠는 동아시아로 향하던 다른 예수회 선교사들에게 그리말디와 연락이 닿으면 자신과 했던 약속에 대해 상기해 달라고 부탁하기도 했다. 조아킴 부베(Joachim Bouvet, 1656~1730)가 라이프니츠와 주고받은 편지에는 이런 정황이 뚜렷하게 드러난다. 부베는 라이프니츠에게 그리말디에게 연락을 취해 라이프니츠와의 약속을 환기하겠노라고 말하는 한편 자신도 자유 시간을 이용해 중국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여 유럽의 기술과 과학발전에 기여하겠다는 다짐을 적어 보냈다.[54]

부베는 루이 14세에 의해 최초로 중국으로 파견된 프랑스 출신 예수회 선교사 6인 가운데 한 명이었다. 부베는 중국으로 떠나기 전 프랑스 왕립과학원의 회원으로 선출되었으며 1687년부터는 청나라에서 강희제에게 천문학, 의학, 화학을 강의하는 시강(侍講)으로 활약하게 되었다. 강희제는 그를 중국 측 사절로 임명해 프랑스로 보내기도 했다. 라이프니츠는 부베와 1697년부터 약 십년 동안 최소한 15회의 서신을 주고받았다. 동서양 문화의 비교에서부터 이진법, 역경(易經)(Book of Changes)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고도 심오한 주제를 다룬 내용들이다.

7개월간의 항해를 마치고 베이징에 도착하자 부베는 1699년 9월 19일 라이프니츠에게 지난번 그가 보내 온 질문 가운데 너무 긴 답변이 필요하지 않은 것들은 즉시 답을 보내겠다며 편지를 썼다. 라이프니치는 프랑스에서 중

48) 라이프니츠가 남긴 예수회 소속 클라우디오 필리포 그리말디와의 대화록, Rome, Summer, 1689. Leibniz, *Der Briefwechsel mit den Jesuiten in China*, p. 18.
49) 1656년 비엔나에서 처음 출판된 것으로 알려진 책으로 본초강목의 영향을 많이 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50) Lach, *The Preface to Leibniz' Novissima Sinica*, p. 29.
51) 라이프니츠가 예수회 소속 클라우디오 필리포 그리말디에게 보낸 서신, Rome, 19, July, 1689. Leibniz, *Der Briefwechsel mit den Jesuiten in China*, p. 12.
52) Franklin Perkins, *Leibniz and China: A Commerce of Light*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4), p. 113.
53) Lach, *The Preface to Leibniz' Novissima Sinica*, p. 29.
54) 조아킴 부베가 라이프니츠에게 보낸 편지. La Rochelle, 28, February, 1698. Leibniz, *Der Briefwechsel mit den Jesuiten in China*, p. 164

국으로 가져간 물건과 거꾸로 중국에서 프랑스로 들여온 물건이 무엇이었는가를 질문했는데, 이에 대해 부베는 아래와 같은 답신을 보냈다. 여기서 인삼은 중국에서 프랑스로 가져온 물건 가운데 첫 번째로 등장한다.

당신은 우리가 중국에서 프랑스로, 그리고 프랑스에서 중국으로 무엇을 가져갔는지 알고 싶으실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저는 당신에게 우리가 다음과 같은 물건들을 중국으로 가져갔다고 말하고자 합니다. 모든 종류의 크고 작은 정밀한 수학 도구, 모든 사이즈의 망원경, 다양한 종류의 현미경, 회중시계, 추시계, 그리고 각도를 조절해서 사용하는 천체 관측을 위한 도구, 악기, 크고 작은 거울, 상감세공 작품, 우리의 가장 아름다운 판화, 화학적/물리학적인 진기한 물건들 일체, 유리 제품, 선반, 그리고 다른 신기한 기계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가장 훌륭한 특별한 약제, 왕립 식물원에서 가져온 씨앗, 다양한 보석류와 인조 진주, 그리고 원석보다는 세공 작업의 섬세함에 의해 더 정교해진 것으로 보이는 여러 보석류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유럽의 가장 훌륭한 책들도 상당수 가져갔습니다.
우리가 중국에서 프랑스로 가져왔던 물건들은 상대적으로 평범하며 덜 흥미롭습니다. 당신이 여러 권의 책을 예외로 칠 수 있겠지만, 그 외에는 덜 흥미로운 것들입니다. 당신이 목록을 받았을 것으로 생각되는 몇몇 선정 도서들과 몇몇 그림들을 제외하면, 인삼과 중국 황제가 마시는 차 같은 중국의 가장 훌륭한 약재들 중 일부, 중국의 몇 가지 보석, 비단, 공단, 그리고 기타 직물, 황제가 사용하던 용무늬 장식 도자기와 강도가 설화석고와 유사하고 나무에 사는 곤충의 분비물로 만들어져 하얀 색을 띄게 된 백색 왁스, 몇몇 악기, 중국 잉크(먹), 명나라 황실에서 사용하던 한 장에 11-12피트 길이의 종이, 칠기, 유럽에는 알려지지 않은 다양한 약제의 견본 및 여러 종류의 중국의 씨앗은 흥미로운 물건들입니다. 그 외에 나머지는 언급할 가치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중국인들보다 열등해지지 않기 위해, 당신의 조언대로 유럽의 가장 훌륭한 지식을 그들에게 자비롭게 전수함으로써 장차 중국인들로부터 유럽에 훨씬 더 유용한 물건들을 가져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프랑스어 원문: Pour contenter le desir que vous avez de savoir ce qu'on a transporté de la Chine en France et de France à la Chine, je vous dirai pour le dernier point que nous y avons porté toute sorte d'Instrumens fins de mathematique, grands et petits, des lunetes d'approche de toutes les grandeurs, diverses sortes de microscopes, de montres, et de pendules à repetition, et pour les observations Astronomiques, à plan incliné, des Instrumens de musique, des miroirs grands et petits, des ouvrages de marqueterie, de nos plus belles estampes, toute sorte de curiosités de chymie et de physique, de verres, de tours à tourner et autres machines curieuses; de nos meilleurs remedes specifiques, de nos graines du jardin Royal des plantes, diverses sortes de pierreries et perles fausses, et autres bijouteries semblables plus curieuses pour la delicatesse du travail que pour la matiere. Et enfin un assez grand nombre de nos plus excellens livres. Pour ce qui est de celles que nous avons portées de la Chine en France, ce sont choses plus ordinaires, et moins curieuses à proportion. Si vous en exceptez plusieurs livres choisis, dont je crois qu'on vous a envoyé la liste, avec quelques peintures[,] quelques unes de leurs meilleures drogues, comme du ginseng et du Thé de la bouche de l'Empereur, quelqu 'uns de leurs bijous, des pieces de brocard, de satin et autres sortes aussi bien que porcellaine aux dragons et usages de l'Empeeur, de la cire blanche approchant de l'albastre pour sa dureté et sa blancheur faite sur des arbres par des vers, quelques Instrumens de musique, de leur anchre, du papier de 11. à 12. piés de long la feuille du temps de la famille (dynastie) des Ming, des ouvrages de vernix, des essays de beaucoup de sorte[s] de drogues inconnuës en Europe, avec plusieurs sortes de leur graines; hormis toutes ces choses, le reste ne merite pas d'estre rapprorté. Mais nous esperons bien dans la suite tirer des Chinois d'autres choses beaucoup plus utiles à l'Europe, pour ne leur pas devenir inferieurs, en leur communiquant si liberalement nos plus belles connoiss-ces pour profiter du bon avis, que vous nous donnez.)[55]

같은 편지에서 부베는 인삼에 대해 좀 더 많은 정보를 제공한다.

당신으로부터 다섯 번째 마지막 편지를 받았을 때 저는 막 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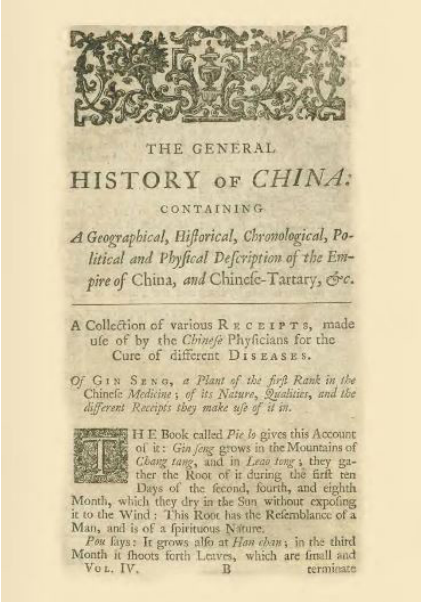
[55] 예수회 소속 요하임 부베가 라이프니츠에게 보낸 편지, Peking, 19, September, 1699. Leibniz, *Der Briefwechsel mit den Jesuiten in China*, pp. 234-236.

선하려던 참이었고, 답장을 드리지 못했습니다. 아마도 그때는 멘젤 씨가 인쇄한 연대기에 대해서 당신이 언급한 대목에 답변을 할 필요가 없었기 때문인 듯합니다. 인삼에 대해서는 제가 더 자세한 지식을 [서신으로] 보내드리기 전에는 우선 멘젤 씨에게 다음과 같이 알려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인삼 뿌리는 특히 한국과 요동에서 자랍니다. 요동의 인삼이 특히 가장 좋습니다. 요동의 인삼 가운데 가장 좋은 것은 황제에게 진상됩니다. 중국에서 인삼은 몇몇 다른 장소들에서도 자라지만, 이 인삼들은 심지어 한국의 인삼보다 뒤떨어집니다.

(프랑스어 원문: Comme j'estois sur le point de m'embarquer, lors que je reçus v^e derniere letre, je ne repondis rien, ce me semble, à l'article, où vous me parliez du livre chronologique imprimé par Mr Menzelius, estant inutile d'y repondre alors. Pour ce qui est du ginseng, en attendant que j'en envoye des connoissances plus particulieres, vous pouvez dire à Mr Menzelius que cette racine croist principalement dans la Corée et dans le Leao tong. Celui de Leao tong est le plus excellent. Le meilleur est pour la bouche de l'Empereur. Il en croist aussi en quelques endroits de la Chine: mais il est inferieur mesme à celui de la Corée.)[56]

여기서 언급된 멘젤은 독일 궁정의 주치의로 활동하던 의사이자 식물학자, 문헌학자인 크리스찬 멘젤(Christian Mentzel, 1622~1701)을 말한다. 멘젤은 독일에서 초기 중국학을 이끌었던 안드레아스 뮐러(Andreas Müller, 1630~1694)와 더불어 베를린 궁정에서 활약한 대표적인 중국학자였다. 중국어에 대한 뛰어난 연구와 예수회의 방대한 기록들을 집대성해 출간하기도 했던 뮐러가 1685년 이단으로 몰려 좌천되자 멘젤이 그 자리를 이어받아 독일의 중국학을 이끌게 된다. 멘젤은 라틴어-중국어 사전을 펴내는 등 중국어 관련 연구를 계승하는 한편 동아시아의 본초학에 큰 관심이 있어서 일본의 식물군에 관한 책을 기술하기도 하며 뛰어난 식물학자로도 명성을 날리게 된다.

중국에 큰 관심이 있었던 라이프니츠는 뮐러와 멘젤 두 사람과도 깊은 교류를 나누었다. 부베의 편지는 라이프니츠와 멘젤 사이의 친분뿐만이 아니라 멘젤이 인삼에 대해 상당한 관심을 갖고 있음을 드러낸다. 편지가 쓰인 1699년으로부터 약 십년 뒤인 1709년 부베는 자르투의 만주지역 지도제작 프로젝트에 참여하게 된다. 한국과의 국경지역에서 자생하던 인삼을 생생하게 묘사한 기록이 나오게 된 바로 그 측량여행 말이다.


THE GENERAL
HISTORY OF CHINA:
CONTAINING
A Geographical, Historical, Chronological, Political and Physical Description of the Empire of China, *and* Chinese-Tartary, *&c.*

A Collection of various RECEIPTS, made use of by the *Chinese* Physicians for the Cure of different DISEASES.

Of GIN SENG, *a Plant of the first Rank in the* Chinese *Medicine; of its Nature, Qualities, and the different Receipts they make use of it in.*

THE Book called *Pie lo* gives this Account of it: *Gin seng* grows in the Mountains of *Chang tang*, and in *Leao tong*; they gather the Root of it during the first ten Days of the second, fourth, and eighth Month, which they dry in the Sun without exposing it to the Wind: This Root has the Resemblance of a Man, and is of a spirituous Nature.

Pou says: It grows also at *Han chan*; in the third Month it shoots forth Leaves, which are small and

VOL. IV. B terminate

그림 7. 장-밥티스트 뒤알드의 『중국의 역사』 중 인삼에 대한 기록.

V. 나가며

1699년 부베가 보낸 편지를 받은 라이프니츠가 그 후 실제로 멘젤에게서 인삼에 대한 정보를 얻었는지, 혹은 직접 인삼을 보고 관찰할 기회를 얻었는지는 분명치 않다. 사실 부베의 편지가 라이프니츠의 수중에 들어왔을 즈음 그의 삶에는 큰 변화가 생겼다. 1698년 그가 모시던 루드비히 공(George Ludwig)이 영국의 왕(George 1세)으로 즉위하면서 영국으로 떠나게 되었는데, 라이프니츠는 함께 가지 못하고 독일에 남겨졌던 것이다. 그나마 라이프니츠가 위안을 삼을 수 있었던 것은 1700년 7월 그에게 평생에 걸친 간절한 소원이었던 베를린 과학원(the Berlin Society of Sciences)이 세워지기로 결정되었다는 사실일 것이다. 과학원 설립을 위해 십여 년을 매진했던 라이프니츠는 종신원장으로 임명되었다.

베를린 과학원은 네 개의 분과로 나누어져 있었는데, 1.

[56] 예수회 소속 요하임 부베가 라이프니츠에게 보낸 편지, Peking, 19, September, 1699. Leibniz, *Der Briefwechsel mit den Jesuiten in China*, p. 238.

의학, 물리학, 화학을 다루는 물리학 분과 2. 수학, 천문학, 역학을 다루는 수학 분과, 3. 역사와 종교사를 포함한 독일어 분과, 4. 일반적인 문학 텍스트를 포괄하는 문학 분과가 그것이었다. 이 기구는 천문대, 실험실, 병원, 도서관, 박물관과 약초원, 동물원과 인쇄소를 갖출 계획이었다. 베를린에 소재했지만 학문적으로 뛰어난 사람이라면 거주지와 상관없이 회원이 될 수 있었고, 영국의 왕립학회처럼 사회적 배경이나 종교를 따지지 않는 열린 조직이었다. 라이프니츠의 구상은 과학원의 독립성을 위해 독점권과 특권을 확보하고, 특별세를 통해 재원을 충당하는 한편 이에 대해 구성원들이 전문화된 지식과 기술을 통해 국가의 발전에 보답하는 것이었다.[57]

그런데 라이프니츠에게 베를린 과학원은 그가 쏟아 부었던 노력과는 달리 온전한 그의 업적으로 남지 못할 운명이었다. 루드비히 대공은 과학원 설립에 매진하고자 하는 라이프니츠에게 빨리 돌아와서 자기 가문의 역사서술을 완성하라고 다그쳤다. 더욱이 과학원의 실무진들과 라이프니츠 사이에는 마찰이 끊이지 않았고, 라이프니츠의 베를린 체류가 길어지면서 심지어 그가 라이벌 가문의 스파이라는 오해까지 생겨났다. 1711년 1월 19일에 열린 독일 과학원의 공식적인 창립행사에 라이프니츠는 참석하지 못했고, 1715년 종신원장으로서 라이프니츠가 받던 급여는 반으로 깎였으며 1716년 그가 사망했을 때조차 과학원은 어떤 공식적인 통보도 하지 않았다.[58]

한편, 라이프니츠가 열심히 서신을 주고받았던 예수회 선교사들의 활동과 기록은 이후 유럽에 중국을 포함한 다른 세계에 대한 상을 심어주는데 결정적인 영향을 끼치게 된다. 프랑스 예수회 신부 장-밥티스트 뒤알드(Jean-Baptiste Du Halde, 1674~1743)는 비록 자신은 한 번도 중국에 가 보지 못했지만 동료 선교사들이 보내온 방대한 기록을 수합함으로써 중국 전문가의 입지에 오르게 된 역사학자이다. 1735년 그가 펴낸 중국의 지리와 역사에 대한 책은 큰 인기를 끌며 유럽 전역에 번역되어 퍼지게 되었다.[59] 그 책에는 인삼에 대한 묘사, 신화와 전설이 들어있다. 인삼의 뿌리는 마치 사람처럼 손, 발, 얼굴과 눈도 있고 기운으로 충만하며, 화북(華北) 지방에서 난 것을 최고로 꼽고 그 다음으로 한국산과 요동산을 알아준다는 것이다. 일본산 인삼도 시중에 나돌지만 하찮게 취급받는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인삼은 황제에게 바치는 중요한 세금이어서 속이는 자는 사형에 처한다거나 북경에서는 은의 여섯 배 이상의 가격에 팔리기도 한다는 내용도 있다.[60]

이후 출판시장의 활성화와 함께 유럽에 널리 유통된 여행기와 식물학서, 심지어 약전에서는 뒤알드의 책에 언급된 내용과 같은 인삼에 대한 설화들이 복제되고 인용되며 인삼의 이미지를 고착화시키게 된다. 라이프니츠가 남긴 인삼에 대한 기록은 그런 이미지가 형성되기까지의 배경, 즉 17세기 말 유럽의 지식인들이 가졌던 인삼에 대한 관심과 그런 관심이 나타나게 된 학문적 지형과 문화적 맥락을 응축하고 있는 중요한 증거의 하나일 것이다.

참고문헌

1. 한국어 저작

김영식, 『과학, 인문학 그리고 대학』 (생각의 나무, 2007).

민은경, 「고대와 근대 논쟁: 템플과 워튼의 중국관을 중심으로」, 『영국연구』, 9 (2003).

설혜심, 「17~18세기 영미권의 인삼(Ginseng) 인식」, 『의사학(醫史學)』, 25권 2호 (2016).

이혜민, 「루이 14세의 인삼: 17세기 말-18세기 초 프랑스의 본초학 지식 형성」, 『의사학(醫史學)』, 25권 1호 (2016).

피터 버크 지음, 박광식 옮김, 『지식: 그 탄생과 유통에 대한 모든 지식』 (현실문화연구, 2006).

2. 외국어 저작

Anon., *A Companion to Every Place of Curiosity and Enjoyment in and about London and Westminster* (London, 1767).

Appleby, John H., "Ginseng and the Royal Society," *Notes and Records of the Royal Society of London*, Vol. 37, No. 2 (1983).

Birch, Thomas, *History of the Royal Society* (London, 1737).

Curtis, William, *A Catalogue of the British, Medicinal, Culinary, and Agricultural Plants, Cultivated in the London Botanic Garden* (London, 1783).

Du Halde, Jean-Baptiste, *Description Geographique, Historique, Chronologique, Politique, et Physique de l'Empire de la Chine et de la Tartarie Chinoise*, 4 Vols. (Paris: P.-G. le Mercier, 1735).

Du Halde, Jean-Baptiste, *The General History of China*, 4 Vols. (London, 1736), Vol. 4.

[57] Ramati, "Harmony at a Distance: Leibniz's Scientific Academies," p. 449.

[58] Ramati, "Harmony at a Distance: Leibniz's Scientific Academies," p. 451.

[59] Jean-Baptiste Du Halde, *Description Geographique, Historique, Chronologique, Politique, et Physique de l'Empire de la Chine et de la Tartarie Chinoise*, 4 Vols. (Paris: P.-G. le Mercier, 1735)

[60] Du Halde, *The General History of China,* 4 Vols. (London, 1736), Vol. 4, pp. 1-21.

Du Hamel, Jean-Baptist, *Regiae Scientiarum Academiae Historia* (Paris: Étienne Michallet, 1698) [Rev. ed. Paris: J.-B. Delespine, 1701].

Fenton, William N., "Contacts between Iroquois Herbalism and Colonial Medicine," in *Annual Report of the Smithsonian Institute* (Washington, DC.: Smithsonian Institute, 1941).

Foyster, William, ed., *Letters Received by the East India Company*, 6 Vols. (London: Sampson Low, Marston & Co., 1896-1902), Vol. 5 (1617).

Gerhardt, Karl Immanuel, "Leibniz in London," *The Monist*, Vol. 27. No. 4 (1917).

Grew, Nehemiah, *Musaeum Regalis Societatis* (London, 1681).

Harris, Steven J., "Jesuit Scientific Activity in the Overseas Missions, 1540-1773, *Isis*, Vol. 96. No. 1 (2005).

Jartoux, Pierre, "The Description of a Tartarian Plant, Call'd Ginseng, with an Account of Its Virtues. In a Letter from Father Jartoux to the Procurator General of the Missions of India and China," *Philosophical Transactions* Vol. 28 (1713).

Lach, Donald F., *The Preface to Leibniz' Novissima Sinica* (Honolulu, Univ. of Hawaii Press, 1957).

Lafitau, J. F., *Mémoire...concernant la précieuse plante du gin-seng de Tartare, découverte en Canada* (Paris, 1718).

Leibniz, G. W., *Sämtliche Schriften und Briefe* (Darmstadt, 1931).

Leibniz, Gottfried W., *Der Briefwechsel mit den Jesuiten in China (1689-1714)*, eds., Rita Widmaier and Malte L Babin (Hamburg: Felix Meiner Verlag, 2006).

Murray, Lady Charlotte, *The British Garden. A Descriptive Catalogue of Hardy Plants, Indigenous, or Cultivated in the Climate of Great-Britain*, 2 Vols. (Bath, 1799).

Perkins, Franklin, *Leibniz and China: A Commerce of Light*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4).

Ramati, Ayval, "Harmony at a Distance: Leibniz's Scientific Academies," *Isis*, Vol. 87, No. 3 (1996).

Ray, John, *Historia Plantarum*, Vol. 2 [2nd edn.] (London, 1688).

Roos, Anna Marie, "Naturalia: The History of Natural History and Medicine in the Seventeenth Century," *Notes and Records of the Royal Society of London*, Vol. 66. No. 4 (2012).

Semedo Alvarus de, *History of the Great and Renowned Monarchy of China, to which is added a History of the late Invasion and Conquest of the Flourishing Kingdom of the Tartars, with an Exact Account of the Other Affairs of China,* trans. Thomas Henshaw (London, 1655).

Thévenot, Melchisédech, *Relation de divers voyages curieux...,* 4 Vols. (Paris: [plusieurs éd.], 1663-1696).

Touwaide, Alain, "Nature's Medicine Cabinet: Notes on Botanical Therapeutics at the Birth of the New World," *Journal of the Washington Academy of Science*, Vol. 89, No. 3/4 (2003).

Woolhouse, R. S., ed., *Gottfried Wilhelm Leibniz: Critical Assessments*, Vol. 3 (London: Routledge, 1994).

Received: January 9, 2019
Revised: February 10, 2019
Accepted: February 11, 2019